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819호〉
2002년 11월 19일(화)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겸 주간 김규진 편집장 김종원 인쇄인 홍문주 신문사 961-4151,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독자투고

수강 중인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윤상필(동유럽·헝가리어 95)군이 학내구성원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보세요.
이와 함께 중국유학생회 회장 최성홍씨 인터뷰와 각 단신들을 확인하세요.

재경

안병만 총장 YTN 대담에 출연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재국

중국이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했다는데… 그 내막은 무엇일까요?

여론·생활제보

서울배움터 경영학과 사은회비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학생들은 "사은회비를 내지 않으면 졸업논문을 심사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참 민감한 사안인데요, 투고해주신 제 2전공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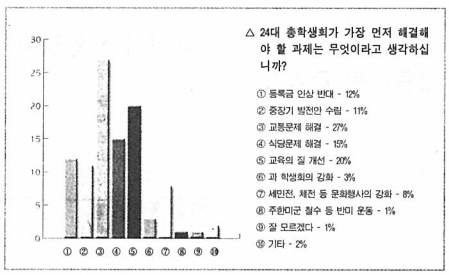
학교밖

지난, 14일(목) 서울배움터 노대패들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7일(일) 노선과 정책이 다른 민주당 노무현후보와 '국민통합 21'의 정몽준후보가 국민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후보단일화에 합의했는데…
이에 크로니클지 궁금증이 일어 한마디 "그럼 정권 획득후엔 어떤 방책이 있으신지?"

교내 이슈

용인배움터 정견토론회, 준비부족으로 아쉬움 남겨



14대 언론협의회와 2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용인배움터 24대 총학생회 후보 정견토론회가 지난 14일(목) 후생복지관 1층 학생식당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개회사 △후보소개 및 패널 소개 △후보자 기조발언 △내부패널 질문 △외부패널 질문 △객석질문 △후보자 정리발언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후보로 출마한 허환회(동유럽·노어 97)-이동수(인문·사학 00)조는 학원자주화 영역, 왕산특화방전 영역, 교육영역, 학생회 영역, 정치투쟁영역, 여성, 기숙사, 객석질문 등 8개 영역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번 행사는 외대교육방송국에 의해 식당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다.

애초 정견토론회는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토론을 하는 자리이나 이번 토론회는 언협과 선본 양측의 준비 부족으로 아쉬움을 남긴 자리였다. 이날 정견토론회는 하루 전날인 13일(수)에서야 개최여부가 결정됐고 수요일날 나온다던 공약집은 정견토론회가 끝난 다음 날인 15일(금)에서야 배포되었다.

또한, 정견토론회자리에서 후보자들은 수강신청과 취업, 여성 관련 질문에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다"고 대답해 공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24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우혜나(동양·미인어 98)양은 "질문이 공약과 정견의 해설이 아닌 비판 쪽으로 간 것 같아 아쉽다. 언협이 형식보다 내용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며 "사전에 질문지를 전달했다면 더 많은 정책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14대 언론협의회 의장 이승준(자연·물리 97)군은 "공약이 너무 늦게 나와 정견토론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예년보다 객석질문이 많아,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외부패널로 참여한 기숙사 사생회장 이재성(동학·미인어 97)군은 "후보자들이 기숙사 등 총장이 추진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패널 교지편집위원 김희선(인문학부 02)양은 "언협과 선본 모두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공약처럼 크게 허물고 크게 세웠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견토론회를 지켜본 김민선(동유럽·헝가리어 02)양은 "질문이 너무 공약 위주였고 자료조사가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고 박윤경(동유럽·폴란드어 02)양은 "내용이 어려웠다"고, 하경환(서유럽·영어학부 01)군은 "운동원을 제외한 학생들의 참여가 적어서 아쉬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4면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용인 총학선거 19, 20, 21일 진행

총여학생회와 생활협동조합, 각각 단독출마

용인배움터 24대 총학생회 후보자 합동유세가 지난 14일(목) 후생복지관 앞에서 진행됐다. 애초 오후 1시 시작이었던 이번 유세는 준비미흡으로 20분 늦은 시각인 1시 20분에 시작됐다.

이날 행사는 △진행경과 보고 △후보자 약력소개 △부총학생회장 후보 지지연설 △부총학생회장 후보 유세 △총학생회장 후보 지지연설 △총학생회장 후보 유세 순으로 진행됐다. 부총학생회장 후보 이동수(인문·사학 00)군은 유세를 통해 "학생회와 학생들의 소통이 막혀있다. 그 동안은 학생회 간부가 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따라오길 바랬으나 앞으로는 학생들이 제시해 주는 길을 총학생회가 따르겠다"며 "왕산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광장'을 만들어 배움터에 남아있을 이유를 제공하겠다"는 등 공약을 소개했다. 또한 총학생회장 후보 허환회(동유럽·노어 97)양은 유세를 통해 "과학생회와 동아리 공동체, 학회 등이 소생되지 않는 한 학생들과 함께하는 총학생회는 없다"며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노선과 전망이 필요하다. 학생들로부터 사랑받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유세장은 추운 날씨와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선거 운동원을 제외한 청중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24대 총학생회 선거는 오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문관, 교양관, 인문경상대, 자연과학대, 정보산업공과대 로비에서 총여학생회, 생활협동조합학생위원회와 함께 진행한다. 투표시에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지참해야하며, 투표용지의 유·무효표기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총여학생회 후보에는 오지혜(서유럽·불어 99)-이지원(서유럽·불어 99)조가, 생협학생위원회에는 장유리(서유럽·영어학부 01)-우보리(서유럽·서반아어 00)조가 출마했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지난 14일(목) 용인배움터 후생복지관 앞에서 진행된 24대 총학생회 후보자 합동유세 모습

윤상필군 심리공판 열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논란 일어

지난 10월 1일(화) 검찰에 연행된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윤상필(동유럽·헝가리어 95)군의 심리공판이 지난 11일(월)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정덕모 재판장의 주재하에 열렸다.

윤군을 기소한 검찰은 이번 심리공판에서 윤군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할 것을 재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응하여 윤군의 변호를 맡은 다산인권센터 박태현(31)변호사는 "한총련이 주장하는 사상을 억압하는 행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윤군의 무죄를 주장했다.

윤군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월)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군이 지난 9일(토) 수원구치소에서 보내온 편지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군은 지난 9일(토) 수원구치소에서 학교로 보낸 '총장님과 외대 전 구성원들께 띄웁니다' 제하의 편지에서 지난 1학기 용인배움터 중앙운영위원회 9명이 받은 징계에 대한 안병만 총장의 입장과 관련, "형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은 동일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받는 억울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굳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우려 한다면 이미 처벌받은 학생대표자들이 동일사안으로 또다시 처벌논의의 대상이 될 경우에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윤군은 또 9월초 안병만 총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안 총장이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고지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학생들의 주장이 결코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학생 대표들을 징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는 말을 했다며 "잘못된 징계를 받는 학생들의 인생에 대한 짐을 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면담자리에 배석했던 김성복 학생지원처장과 장건 학생지원부처장 모두 "(안병만 총장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윤군이 지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편지전문 2면 참조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쌀수입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개최

지난 13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주최로 'WTO 쌀수입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한강 둔치를 가득 메운 농민 9만여명(전농추산)은 "쌀수입개방 결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쌀시장 개방 반대와 지난 10월 24일(목) 체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현찬 전농 의장은 대회사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의 홍수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농업은 이제 한-칠레 FTA, WTO 협상, 쌀 전면 수입개방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죽음이냐 투쟁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도 연대사에서 "WTO 협정은 민족 모두의 문제이다.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자와 함께 해야 한다"며 연대투쟁을 강조했다.

도종환, 정몽준, 권영길 등 대통령 선거후보자들도 각각 나와 농민들을 위한 공약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WTO 차기 협상시 쌀 관세화 유예조치 관철 △한-칠레 FTA 합의 폐기 및 국회 비준 중단 △식량자급 목표 법제화 △농가부채 해결 및 쌀값 등 가격보장 대책 마련 등 8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정부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기계를 동원해 고속도로 등을 점거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농민대회에서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선 90여명, 용인배움터에선 20여명이 참가했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사랑

임

교육부장
김정희 (서양·불어 96)
장서윤 (서유럽·불어 98)

외대학보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선거

· 기간: 19일(화), 20일(수), 21일(목)
· 장소: 용인배움터 학내 곳곳의 매표소
※학생증은 필수입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87년 민주화 항쟁을 두고 몇몇 지식인들은 "이제 겨우 봉건 국가에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5년이 지나 민주적인 제도 자체는 어느정도 안착화되었다고 평가받는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지수는 얼마일까? 고려대 최장집 교수는 이에 대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단언한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정치 수준에 대한 날카로운 현실분석이 돋보이는 이 책은 △보수주의에 젖어 있는 시대상황 △보수주의가 고착화된 역사적·구조적 기원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결론) 등 총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최장집
/ 후마니타스
/ 12,000원

빈각

물고기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싶다" 얼마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생의 마지막 말이다. 9월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53.1%가 가출충동을, 27.6%가 자살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세상을 이제 막 알아나갈 어린이들의 머리 속에 '가출'이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생각이 자리잡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이 시대는 초등학생부터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으로 보내며, 운동장을 뛰어 노는 대신 책과 씨름하게 한다. 세상은 결국 9일(금) 성적도 좋고 성격도 쾌활하던 한 초등학생을 죽음의 길로 몰고갔다.

▲수능시험이 끝났다. 수험생들은 수능을 위해 3년 아니 자신의 10대를 전부 걸었다. 수능 다음날 성적에 따라 수험생들의 집은 초상집과 잔치집으로 대조된다. 언론들은 수능점수가 몇 점 상승했느니,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느니 야단이다.

수능이란 잣대로 학교가 나뉘고 대다수의 어린 학생들은 10대에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현실 앞에 두려움과 무력함을 느낀다.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무섭다. 취업에 큰 영향을 주는 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간됨이 아닌, 출신대학 즉 명문대 졸업장이다. 사회는 이미 일부 유명 명문대 졸업생들에게 점령되어 있으며 나머지 타 대학 학생들은 명함조차 부끄러워 내밀지 못한다. 결국 학벌하나로 한사람의 인생이 결정나는 사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초등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원을 전전하며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만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 학원과 과외를 붙이고 엄청난 학비에 허덕인다. 이렇게 자란 자금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는 보장되어있을까? 좀 더 비싼, 좀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 옆에 앉아 있는 친구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강요하는 이 사회에서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 아이의 꿈, 동심, 추억까지 날려버리고 명문대로 향하는 학벌제,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힘들어 세상을 등진 작은아이의 명복을 빈다.

편집장

이 사람

중국유학생회 회장·최성홍(사범·영어교육 00)씨를 만나

중국유학생의 길잡이가 되길…

"한중 양국간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외대 내에도 중국 유학생의 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늘어난 중국유학생들에게는 낯선 한국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난 3월 만들어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유학생회 회장 최성홍(사범·영어교육 00)씨의 말이다. 현재 40여명이 활동하고있는 외대 중국유학생회는 외대내의 중국유학생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관문점, 민속촌, 월드컵경기장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했다. 지난 6월에는 대학로에서 열린 'SUFA(대학생 거리축제) 2002'에 참가해 중국의 전통춤과 전통노래를 선보이는 등 중국문화 알리기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기자의 우려와는 달리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선보인 그녀는 흑룡강 출신의 재중동포 3세로 33살의 나이에도 수업을 듣는 늦깎이 대학생이다. 그녀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한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한국기업에 취직하면서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또 나이를 먹을수록 한민족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 한국을 찾았죠"라며 한국을 찾은 이유를 설명한다.

얼마전 그녀가 회장으로 있는 중국유학생회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번 중국유학생들과 무료로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녀는 프리토킹의 취지를 "이번 사업은 저희 유학생들과 한국인들 둘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서로 언어를 배우는 입장이고 실전에 사용해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그 효과가 클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현재 중국유학생회는 오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간 '한중학생문화제'를 준비중이다. 27일(수)에는 유학생들이 한국말로 연기하는 창작극 "편의점 2"을 공연하며 28일(목)에는 중국대사관에서 준비한 "한중 교육 비교" 강연회를,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한국인 학생들이 중국어로 공연을 준비한다. 또한 행사 기간 중에는 중국사진전과 음식전등 여러 부대 행사들도 준비되어 학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최씨는 "많이 어설프지만 유학생들이 열심히 창작극을 준비하고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관련된 여러 행사가 기획되고 있으니 직접 보시고 중국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중국유학생회의 프리토킹을 신청하고 싶은 학생은 부회장 위군(016-244-6823)에게 신청 문의 할 수 있다.

김종원 기자
bpress@hanmail.net

외비가디 정기공연

용인배움터 통기타 음악 동아리 외비가디의 13번째 정기공연이 지난 17일 명동 아바타룸에서 열렸다. '그녀석들과의 여행'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외비가디의 한해를 결산하는 자리였다. 총 1·2부로 구성된 이번 정기공연은 창작곡과 함께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Carnival',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시켜줘' 등 총 18곡의 공연곡을 선보였다. 보컬,일렉,베이스,통기타,재즈기타,키보드로 구성된 총30명의 멤버들이 2개월 넘게 연습 과정을 가졌다. 이번 정기공연은 작년과 달리 외부 공연장에서 공연이 열렸다. 특히 직접 만든 창작곡의 연주와 게스트로 홍익대 인디밴드와 초청가수 한동준씨가 함께해 관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동아리 회장 윤창희(전자공학과·01)군은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 보다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멤버들간의 추억이 더 소중하게 남는다" 며 "추운 날씨에 끝까지 함께해준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서우회 25회 정기 전시회
용인, 11일~15일 서울, 25일~29일

서울·용인 양배움터 연합 서예동아리 '서우회'가 지난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1층 전시실에서 제 25회 정기전시회를 가졌다.

재학생과 졸업한 선배들이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회에는 예서, 해서, 전서등 다양한 글씨체의 작품 총 17점이 전시되었다.

이와 관련, 용인배움터 '서우회' 회장 유승덕(정보산업공과대학·디지털정보 97)군은 "요즘 대학생들이 옛 것에 대해 관심이 적어 아쉬웠다"며 "작품을 함께 준비하면서 선·후배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우회는 이번에 전시된 작품을 오는 25일(월)부터 29일(금) 5일간 서울배움터 상설 전시장에서 다시 전시한다.

일본어과 학회 정기

용인배움터 일본어과 원어가요반 코다마(コダマ)가 지난 15일(금) 후생복지관 4층 소극장에서 정기공연을 열었다. 코다마는 일본 음악을 통한 일본어 공부와 친목도모를 위한 소모임이다.

올해로 16번째 열리는 이번 정기공연은 드럼, 베이스,키보드,기타로 구성된 공연 멤버들이 체리필터 등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가수들의 노래를 일본어로 바꾼 번안곡을 위주로 총 13곡의 연주를 선보였다. 이와관련, 학회장 윤극열(동양·일본어 01)군은 "2개월 넘는 연습기간 동안 멤버들 모두 잘 따라와 주어서 고맙고, 만족한 공연이 됐다"고 전했다.

인도인의 밤

오는 23일(토) 서초역 천년부페에서는 용인배움터 인도어과 주최로 '인도인의 밤' 행사가 열린다.

졸업생을 축하해 주고 인도어과의 결속을 다지는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재학생을 비롯해 70여명이 모일 예정이다.

행사는 학과장님 축사를 시작으로 △재학생 송가 △졸업생답가 △게임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김능현 (동학·인도어 97) 군은 "우리과는 동문들의 단합이 다른 과에 비해 약한 편인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선후배간의 교류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딜리셔스사이코 정기공연

오는 19일(화) 오후 5시 반 용인배움터 동양학대 락 밴드(Rock band) 동아리 '딜리셔스 싸이코(Delicious psycho)'의 두 번째 정기공연이 자연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狂(미칠 광)을 주제로 관객과 함께 즐기는 행사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멤버의 음악 취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컬의 비중이 컸던 기존의 밴드와 차별화된 연주 방식으로 진행되며 Red Hot Chilly Peppers 의 'Suck my kiss'를 비롯해 Next의 'Lazenca Save us' 등 국 내·외 펑크, 락 음악을 선보인다.

이와 관련, 딜리셔스싸이코 부회장 신민호(동양학·일본어과 01)군은 "관객과의 일체감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비나리 정기공연

지난 14일(목) 용인배움터 전통민속연구회 비나리의 여덟 번째 정기공연이 열렸다.

후생복지관 4층 소극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들의 향연이라는 뜻의 목음지향(木音之香)을 주제로 펼쳐졌다.

본 공연은 △독주 △실내악 연주 △ 판소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파헬벨의 캐논과 같은 친숙한 외국 곡들도 연주돼 국악을 어렵게만 생각했던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비나리의 회장 심은경(동양학·아랍·01)양은 "흔히 국악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고정관념이 우리 공연으로 인해 변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림사랑 전시회

오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간 용인배움터 만화동아리 그림사랑의 전시회가 학생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병원을 소재로 한 3편의 단편만화와 31편의 자유소재 만평, 일러스트 등 총 34편의 작품이 전시된다.

회장 주진(정보산업공·컴퓨터공학 01)군은 "31명의 회원들이 한 학기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새내기들이 적어서 아쉬웠다. 전시회를 통해 새내기들이 그림사랑에 많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무리 정기공연

오는 19일(화) 오후 6시 용인배움터 후복관 소극장에서는 민중가요노래패 '해무리'의 정기공연이 열린다. 올해로 18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엔 운도현밴드의 '철문을 열어', 거북이의 '시계' 등을 개사·편집한 공연이 한 시간동안 진행된다. 또한 민중가요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와 관련, '해무리' 회장 원제우(자연·수학 98)군은 "선동적인 느낌이 컸던 기존의 민중가요에서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제기구 설명회

국제기구 진출 희망자를 위한 설명회가 오는 20일(수) 서울배움터 대학원 소극장에서 열린다. 모의국제연합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외교통상부 국제연합과의 강석기사무관이 강연을 맡게 된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818호 7면 '흙산의 소리' 기고자 전영욱군의 소속을 (서양·노어 97)에서 (동유럽·노어 97)으로 정정합니다.

외대학보

세계영화제 준비위원회

11월의 테마 - 세계 단편 애니메이션 걸작선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전

· 담배-이기영, 덤불속의 재-이성강, Grafiti-김치훈 외 7편
· 때 : 11월 19일(화) 오후 5시 30분
· 곳 : 서울배움터 대학원 411호(6411)

우연히 UFO를 목격했던 주인공은 이상한 힘에 의해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환각에 시달린다. 격렬한 환각끝에 지살한 그는 죽음 이후에 반쪽 몸들이 배회하는 이상한 땅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덤불 속의 재 -이성강)

98 대한민국영상단회대상 대상 수상작

다음주 상영작- 로맨티카 11월 26일(화) 오후 5시 30분

▶ 자료제공 - 서현미 (서양·불어 99)

서울배움터

구분 / 요일	학생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월 (16일)	사골우거지국밥 (₩1,400)	오징어숙회비빔밥 (₩1,300)	비프카레라이스 (₩1,400)	갈비탕 (₩1,600)	짜장짬시 (₩1,500)	쫄뽕 (₩1,000)
화 (19일)	돈육김치찌개 (₩1,400)	햄김치볶음덮밥 (₩1,400)	오무라이스 (₩1,500)	선지해장국 (₩1,500)	콩나물비빔밥 (₩1,200)	떡만두국 (₩1,200)
수 (20일)	소불고기백반 (₩1,000)	해물모듬덮밥 (₩1,500)	포크커틀렛 (₩1,600)	냉이된장찌개 (₩1,300)	닭불고기덮밥 (₩1,500)	잔치국수 (₩1,000)
목 (21일)	코다리찜백반 (₩1,000)	참치회덮밥 (₩1,500)	소고기버섯덮밥 (₩1,500)	얼갈이곰탕 (₩1,500)	순두부찌개 (₩1,300)	스파게티 (₩1,200)
금 (22일)	콩나물국밥 (₩1,400)	낙지야채볶음덮밥 (₩1,600)	양송이볶음밥/짜장소스 (₩1,400)	육개장 (₩1,500)	불고기덮밥 (₩1,500)	우동 (₩1,000)

용인배움터

구분 / 요일	어문관			후복관		
	중식 1	중식2	분식	일품	스페셜	양식
월 (18일)	탕수육덮밥 (₩1,500)	갈비탕 (₩1,800)	칼국수 (₩1,200)	장육불고기덮밥 (₩1,800)	감자수제비국 (₩1,500)	포크스튜 (₩2,000)
화 (19일)	참치찌개백반 (₩1,500)	오징쟁장식 (₩1,800)	우동 (₩1,200)	부대찌개 (₩1,800)	볶음밥/짜장소스 (₩1,500)	함박스테이크 (₩2,000)
수 (20일)	라면잡채밥 (₩1,500)	김치불고기비빔밥 (₩1,800)	유부국수 (₩1,200)	따로국밥 (₩1,800)	김치참치덮밥 (₩1,500)	수제돈까스 (₩2,000)
목 (21일)	만두국백반 (₩1,500)	카레돈까스 (₩2,000)	김치국수 (₩1,200)	동태매운탕 (₩1,800)	콩나물야채비빔밥 (₩1,500)	김치국 (₩2,000)
금 (22일)	김밥볶음밥 (₩1,500)	우거지감자탕 (₩1,800)	잔치국수 (₩1,200)	사골떡국 (₩1,800)	치킨커리라이스 (₩1,500)	치킨까스 (₩2,000)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윤상필(동유럽·헝가리어 95)군이 수원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전문

총장님과 외대 전 구성원들께 띄웁니다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교직원선생님들 그리고 왕산 7,000학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왕산 학생회를 최선두에서 책임지고자 했던 대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철장에 갇힌 신세가 된 점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 이유는 11월 5일자 외대학보기사를 보고 들게 된 몇가지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이며, 아울러 비록 몸은 이렇게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지만 그 마음은 항상 왕산교정과 7000학우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고, 저의 진심어린 이야기를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1월 5일자 학보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지난 등록금 투쟁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생대표자 징계철회에 대한 안병만총장을 위시로 한 학교측의 입장은 「철회불가」이고, 그 근거로 '조규철총장하에서 있었던 일입으로나(안병만총장)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법리적 측면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정 불소급의 원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위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법리적측면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한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은 동일사건에 대해 두번 처벌받는 억울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굳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우려 한다면 이미 처벌받은 학생대표자들이 동일사안으로 또다시 처벌논의의 대상이 될 경우에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재심의'에 해당하는 문제로 봐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이미 죄와 형이 확정된 기결사건에 대해 '재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학교 학칙상 징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징계 '재심의' 혹은 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인데, 역으로 말해 '재심의' 및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재심의' 및 '징계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제한규정이 될 수 없는 바, '재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 재소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칙이 없다 한다면 제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병만 총장께서는 9월초에 있었던 저와의 면담자리에서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고지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학생들의 주장이 결코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치 않는다", "학생 대표들을 징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다들 잘 알겠지만 전에 내가 총장을 역임했던 시절엔 그런일이 한 번도 없었다. 윤준이 95학번이면 잘 알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그 자리에서 제가 요구했던 '징계철회', '학점인정'에 대해서는 "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다. 가능한 문제인지 알아보겠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현명하게 풀어나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초에서 10월 23일에 걸친 한달 반의 시간동안 안병만총장께서는 무엇을 알아보시고 본인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징계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와의 면담자리에서 했던 말들이 교육자의 양심과 제자들에 대한 스승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금에 와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조규철 총장때의 일이었음으로 소급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징계에 대한 '재심의·철회' 관련 학칙을 제정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미 이루어진 징계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얼마든지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단서조항을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중에서 학칙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학칙은 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내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이 취하고 있는 '일사부재리'나 '법령 불소급'이 나름 따질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내규라는 그 취지에 맞게 기본적 교육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소급의 원칙'을 앞세워 학칙을 제정하더라도 소급적용 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총장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징계로 인한 학생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셋째, 이 문제는 단지 법리적 측면을 뛰어넘어 이전 총장의 그릇된 인식과 처사로 인해 학생들의 미래와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징학이라는 부당한 징계로 인해 여름방학때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던 학생 대표자들이 학점이수가 안되어 어쩔 수 없이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하고, 이로인해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투쟁을 위해 자신의 대학생활을 바치고 옥고를 치뤘던 우리 선배들은 학교측의 배려로 등록금도 면제된 채 한 학기에 30~40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화투쟁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한 학기에 이수조차 불가능한 30~40학점은 가능하고, 수업 다 듣고 시험 다 치룬 성적은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총장께서도 이미 징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듯이 그에 상응하는 구제조치가 분명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더 늦기전에 징계철회 및 학점인정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안병만총장께서는 저에게 "잘못된 징계"라고 인정하신 것과 학생대표자들 인생의 문제에 대해 무거운 짐을 짊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외대는 98년 비리재단이라는 썩은 살을 도려내면서 적지않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은 관선이사가 파견된 현실도 아니오, 외대의 사회적 위상과 이미지가 하락했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건 바로 비리재단을 몰아낸 그 토대위에 학내구성원의 단결된 힘으로 민주적인 사학운영의 모습을 그려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대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많은 사립대학들은 비리재단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관선이사 체제의 한계를 넘어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많은 발전적 상들을 그려왔습니다. 실제 상지대학교의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한 법정투쟁까지 진행하면서 공영하 재단 구성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우리 외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반목과 질시, 책임전가와 회피,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징계하고, 누구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는 누구를 반대하고, 온갖 루머와 유언비어, 교수·교직원 사회에서의 줄세기와 보신주의…

마치 길 잃은 한 마리의 기러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맹망대해를 방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시간 방황의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저는 전 외대인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젠 더 이상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미룰것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백지위에서 다시금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우리 저희들이가고 새로운 외대도약의 원년 2003년이 곧 시작됩니다.

앞으로 승리의 V자를 그리며 날아갈 외대라는 기러기 무리들의 가장 선두에 서게 될 새로운 총장도 선출되었고, 곧 있으면 2003년 학생대표자들도 선출됩니다. 모두가 희망으로 가득차 있는 이 시기, 지난날의 반목과 질시, 쓰라린 아픔들을 치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지혜로서 새롭게 도약하는 외대를 그리기 위해 총장님을 필두로 한 외대 전 구성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과 학교당국에 고합니다.

왕산 7,000학우들이 학교생활속에서 겪어온 그 동안의 직·간접적인 어려움들에 있어 매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획기적이고 진환적인 차원에서의 구체적·현실적인 대안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대표자 징계철회와 학점인정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2002년 중앙운영위원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의 그 마지막 소임과 의리를 다하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만약 총장님을 위시로 한 학교당국에서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수원구치소에 오셔서 면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의 수번은 368번입니다.

2002년도 왕산 학생회를 책임지는 대표자로서 끝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옥중에서 지면을 빌어 말씀드림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외대 전 구성원 여러분과 왕산 7000학우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삶의 전선에서 학업의 전선에서 건승하시길 소망합니다.

2002년 11월 9일

수원구치소에서 23대 총학생회장 윤상필

보도 - 안병만 총장 YTN 대담

"일본에 분교를 낼 것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5일(금) 방송된 YTN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병만 총장이 뉴스전문채널 YTN의 '최동호의 토크라인'에 출연한 것이 지난 15일(금) 방송됐다. 이 대담에는 현재 진행중인 외국어고등학교 문제, 지역할당제, 외대의 비전 등에 대한 안 총장의 생각이 집약적으로 담겨졌다. 이에 대담 중 우리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지면에 싣는다. 편집자

사회자 : 계획하고 계신 외대부속 외고는 교과과목도 영어로 강의하는 그런 학교군요. 그러니까.

안병만 총장 : 네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교장 선생님이 중요한데, 저희는 교장 선생을 미국 전역에 공고를 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교장선생님을 초빙하면 이후 학생모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문에서는 우선권을 용인시나 경기도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할당의 배후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역시 위치가 용인에 있고 용인시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일정한 할당을 주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고등학교를 만들면 안 되니까 전국의 학생들 대상으로 좋은학생들을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외대는 신입생 선발에서 지역할당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대학교에서도 정운찬 총장이 그 얘기했다가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거든요 강행하실 계획이세요?

외대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어학에 아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찾아 그 학생들이 외대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하려고 합니다.

사실 6,70년 초까지만 해도 외국어하면 외대가 아주 유명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희석됐다고 생각되는데 학교에서 선택과 집중을 너무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역시 외대는 외국어대학으로서의 특성화를 더 살려갔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총장시절에 프랑스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이날로라는 동양어 대학이 있습니다. 99개의 외국어 전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더라구요. 그걸 보면서 외대도 27개가 있다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주 부족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70년대 초에 전국의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력고사 평균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대가 톱10 안에 들었어요. 외대 신입생들의 평균이 이마 7, 8등 정도했었는데, 외대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새는 뭐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외대가 그동안 양적으로 많이 확장되면서 수준은 옛날만큼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영광을 다시 찾아보고자 다시 총장이 된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몽골어학과를 신설하신다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텐데 오히려 학과 운영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학교육의 목표 중에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목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갔는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아픔도 제대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같은 곳에서 그런 언어들을 가르쳐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앙 아시아 지역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곳입니다. 선진국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언어는 하나도 모릅니다. 비인기학과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 대학이 담당해야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 일본에 분교를 내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을
> 가르치면 많은 학생들이 올것

어렵게 보면 사실 모든 게 영어로 통하는 세상 아닌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차라리 '외대' 그러면 영어공부를 철저히 시키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영어공부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과를 영어대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영어대학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도 외대니까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영어를 하고 있는데 이 영어를 제대로 가이드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외대의 영어과가 대학수준으로 올라가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영어교육을 하도록 선도하는 기관이 되면 어떨까하는 생각 때문에 만들려고 합니다.

중국어과와 일본어과를 합쳐서 동북아이학부로 개편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배경이 어떤 것인가요?

동북아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동북아에서도 한국이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언어부터 따져볼 때 젊은이들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국경이 없는 유능한 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멀티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과, 일본어과를 하나의 학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멀티플레이어들을 창출해냈 수 있다면 사회가 꼭 필요한 인재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의 유수한 대학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상황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외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들어오면 국내의 군소 대학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대에서는 2가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외대는 100개가 넘는 자매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그런 외국의 자매대학들과 연결해서 학술교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2 + 2'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대학에서 2년간 공부하고 미국대학에서 2년 공부하면 양쪽에서 졸업장을 받는 겁니다. 이미 한 학생이 나왔습니다. 외대에서 2년 공부하고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학에서 2년 공부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동시에 졸업장을 받았어요.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잘 됐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외국에 분교를 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격적으로 나가야지 수세적으로 대처해서만은 안되니까요. 제가 며칠 후에 일본에 가는데 거기에서 외대 분교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보려고 합니다.

최용식 기자

그러면 일본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주입니까?

일본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 분교가 되겠고, 학생은 일본인들이 주를 이루겠죠.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어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가서 분교를 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을 가르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올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외대하면 80년대 학생시위로 아주 유명하지요? 외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 학생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특히 외대가 심했던 거 같아요. 임수경씨도 외대출신이 아닙니까? 외대가 특히 심했던 것은 왜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외대생들이 외국어를 잘 하니까 외국을 잘 알지 않습니까? 국내신문은 통제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던 시절인데 타임스나 뉴스위크나 독일이나 영국에서 나온 외국신문들을 외대생들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의식이 다른 대학 학생들보다 더 빨리 생기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80년인가요, 재단분규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도 따랐는데, 이적도 입시이사제재가 계속되죠? 그건 언제쯤 정상화되겠습니까?

제가 총장이 되자마자 구성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위원회들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의견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공영화된 재단을 하나 만들자는 방향으로요. 의견이 10개도 넘었는데 이제 하나로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내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충장께서 발이 넓은 편이세요. 그래서 등분서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 잘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이젠 기금 많이 끝어오셔야죠?

기금 마련하는 것이 우리 동문들한테 도와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역시 기업이나, 정부같은 돈 많은 데서 끌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시라든가 외국에서도 끌어와야 합니다. 아까 분교같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건 우리 자본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기금 마련의 소스를 다양화할 때만 제대로 기금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 :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사설

농업은 '양보'할 산업이 아니다

지난 13일(수)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 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가 개최됐다. 이들의 요구안은 크게 WTO 차기 협상시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관철할 것, 한-칠레 협정 폐기, 식량 자급목표 법제화 등 총 8개안이었다. 덧붙여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현재 한국 농업은 파탄 일로를 걷고 있다. 식량 자급률은 30%를 밑돌고 있으며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도 미치지 않는다. 농촌의 고령화는 나날이 심각해져 40대도 찾아보기 힘들고 50대가 평균 연령이 되어버린 형편이다. 반면 2004년이면 지난해 도하에서 합의된 이른바 '뉴 라운드(NEW ROUND)협정'에 의거해 쌀수입이 전면 개방되고 지난달 24일 타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단계적인 무관세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되는 등 압력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원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타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토마토·당근 등은 5년내로, 복숭아·단감 등은 10년내로 무관세화되어 이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피해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과·배의 무관세화 예외를 받아냈다고 하지만 2000년 오렌지 단일품목 수입당시 모든 과채류 농가가 타격을 받았던 예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설득력이 없는 근거다.

자유무역협정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관세·비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기로 둘 이상의 나라들이 서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24일 3년간 끌어온 칠레와의 협정이 타결된 후 대부분의 언론과 정부부처에서는 금융·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농업 등의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어느정도 '양보'할 수 밖에 없는 분야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농업을 공공산업이 아니라 단순히 경쟁력이 약한 산업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에서 근거한다. 더군다나 김대중 정부 들어 농가부채는 56% 증가한데 반해 농가 소득은 1.7% 증가하는데 그쳐 어려울데로 어려워진 농어민들에서 어떤 대책도 없이 개방은 대세라는 식의 밀어붙임은 더이상 용납되어져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한 기성언론의 각성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실제로 KBS·SBS 등 공중파 방송은 농민대회 당일 '교통혼잡 예상' 등을 부각시키고 최근 들어 '이익단체' 들의 집회·시위가 늘고 있다는 등의 보도 태도로 일관했다. 10-15년 시이에 먹거리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교통흐름에 우선의 가치 판단 순위를 두고 농민단체를 단지 자기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단체인 양 '이익단체'로 둔갑시키는 등의 보도 관행은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외사랑 〈17〉 글·그림 서은英

복수전공 취소 신청

2002학년도 전기 졸업(2003. 2월) 희망자의 복수전공 취소 신청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취소대상

복수전공 이수 허가자 중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

취소신청

가. 취소기간 : 2002. 11. 18(월) - 11. 22(금)

나. 신청장소 : 해당 단과대학 교학과

다. 제출서류 : 복수전공 취소 신청서 (교학과 비치)

유의사항

가. 복수전공 이수 허가자 중 취소 기간 내에 "복수전공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함 경우, 2002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에서 제외됨.

나.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복수전공을 취소한 시에게는 해당 학기말에 제1전공(부전공 인정) 학위를 수여함.

2002. 11

교 무 처 장

공 고

200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및 수강신청 · 등록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다 음 -

1. 개설예정 교과목 : 학교 홈페이지 참조 (www.hufs.ac.kr)

2. 수강신청 및 등록
◆ 등록기간과 수강신청 기간이 다름 → 등록을 필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① 등록 기간 → 2002. 11. 20(수) ~ 11. 26(화) → 5일간
② 납입고지서 발급 → (서울) 학사지원과 / (용인) 교무과
③ 납입장소 → 제일은행 외대지점 (서울 · 용인)
④ 수강신청 기간 → 2003. 12. 2(월) ~ 12. 6(금) → 5일간
⑤ 수강신청 방법 → 인터넷을 이용한 CyberLine 수강신청 (학교 홈페이지 → www.hufs.ac.kr)
⑥ 수강신청 시간 → 09:00 ~ 20:00

3. 수강료
① 등록비 : 1인당 10,000원
② 수업료 : 1학점당 64,000원
③ 수강료 신청 예 : 2학점 : 138,000원 / 3학점 : 202,000원 / 4학점 : 266,000원 / 5학점 : 30,000원 / 6학점 : 394,000원

4. 수업기간 : 2002. 12. 26(목) ~ 2003. 1. 15(수)--16일간 (토요일포함)
※ 휴강일 : 2003. 1. 1(수) - 신정 / 1. 7(화) - 2003학년도 정시 전형

5. 수강인원이 30명이상 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 폐강되는 교과목은 수강료를 환불함

6. 수강료 환불기간 : 2002. 12. 11(수) ~ 12. 13(금) (계절학기 납입금수증 및 학생증 지참)

7. 취득학점 범위 : 최대 6학점 (타 대학 계절학기 및 단기 해외연수 포함)

8. 휴학생 복학예정자 및 7재학 기 총 134학점(법학과 144학점)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9. 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확정 일자 : 2002. 12. 18(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961-4361)로 문의 바람

2002. 11

교 무 처 장

200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신청 공고

1. 신청자격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으로 1학년(2학등록) 재학생 및 2002학년도 제2학기 복학생(3, 4학등록) 중 교직이수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학생

2. 신청기간 : ▶ 1차(예비신청) : 2002. 11. 18(월)~11. 22(금)까지
▶ 2차(본 신청) : 2003. 4월 예정
※ 계열 및 학부로 입학한 학생(영어학부 제외)은 학과 또는 전공이 배정된 후 2003년 4월(2차 본신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2차 기간중 한번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방법
가. 1학년(2학등록 재학생) : 온라인신청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PLAZA(학부) · 로그인 · 수업정보 · 교직이수신청(등록 후 미결로 남아 있음)
나. 복학생(3, 4학등록)은 사범대학 교학과 및 용인 교무연구처에 교직이수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 제출

4. 선발기준 : 교직과정이수 신청 학생수가 아래 소속학과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선발한다.
가. 1학년(2학등기)까지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총 평점평균 기준)
나. (가)항이 동일한 경우 전공성적이 우수한 자
◆ 설치 학과(부) 및 선발인원

대학명	학과 · 전공	선발인원		대학명	학과 · 전공	선발인원	
		서울	용인			서울	용인
사범대학	영어학부	14	11	자연대학	수리과학	9	5
	불어	9	7		전산학	8	
사회과학대학	독일어	9	7		물리학		12
	노어	15	14		수학전공		4
	서반아어	28	23		전자물리학전공		4
동양어 · 동양문	중 어	30	12		화학전공		4
	일본어	30	4		환경학전공		15
	아랍어	15	12	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전공		35

5. 선발공고 : 2003년 5월 중(게시판 및 인터넷)

6. 유의사항
가.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만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나. 2002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부전공 이수학점이 종전 21학점에서 30학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다. 전과 학생은 전적 학과에서 이수한 성적으로 선발 함.

2002. 11

사 범 대 학 장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안내

학생 · 학부모의 등록금 납부편의를 위해 2003학년도 제1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존 등록금 3회 분할납부는 신용카드로 한부대체 할 수 있으므로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시행 시기

2003학년도 제1학기부터

납부 대상

학부 · 대학원생 (신입생 제외)

납부 신용카드

국민카드, LG카드

납부방법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수납 가능합니다.
국민카드(http://www.kookmincard.co.kr)
LG카드(http://www.lgcard.com)

납부기간

등록기간내 (2003. 2. 17 ~ 2. 24 예정)

카드사 수납조건

	국민카드	LG카드
가맹점수수료	0%	0%
무이자 할부	3개월	3개월
최장할부	36개월(16.7%)	36개월(16.7%)

시행효과

가. 학부모님의 잦시남 부담 경감
나. 기존 등록금 3회 분할납부제도 폐지
(3개월까지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장기할부는 카드사별 이율적용)

2002. 11

총 무 처 장

용인배움터 24대 총학생회 후보출마자 정견토론회

"해외연수 · 유학시 장학금 받게 하겠다"

사회자 - 외대학보 편집장 김종원
패널 - 외대학보 대학부장 김민경
외대교육방송국 보도부장 김소윤
교지편집위원 김희선
기숙사 사생회장 이재성

(23대 총학생회 평가 부분)

1. 전반적인 23대 총학생회를 평가해 주십시오.

정 : 23대는 등록금 투쟁을 진행하면서 250명 이상의 지지단식을 이끌어 내는 등 대중성이 있었지만, 그 뒤로 투쟁이 늘어지면서 다른 여타의 총학생회 기존 사업들을 내용성 면에서 많이 답보해 내지 못했다.

(학원자주화영역)

1. 재단발전위원회는 재단의 상을 '공영화'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재단발전위원회에 용인배움터 23대 총학생회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재단공영화에 대한 24대 총학생회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 : 24대총학생회는 재단을 공영화한다는데 찬성하고 있다. 앞으로 외대가 발전할 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능력있는 이사진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는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영화 이전의 여러 가지 재단의 수익사업, 외대의 특화발전 등은 학생들 교수들과 만들어 가는 공참화를 진행할 것이다.

2. 공약 중, 전투적 노선 폐기란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해주십시오. 또한, 전투적 학생회 노선폐기의 더 강력한 수준의 등록금 투쟁은 서로 모순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정 : 전투적학생회란 80년대 학도호국단을 해체시키고 자주적 민주적 학생회를 구성할 당시 학생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투쟁 지도부의 역할을 하는 총학생회이다. 학생회에 관습처럼 내려오고 수직적 하향적구조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등록금 투쟁은 총학과 중운위에서 논의됐던 방법들로 회계계를 통해 지침 내리는 대로 학생들이 동원되는 투쟁이 아니라 24대는 사이버 총학생회 등을 통해 투쟁방법을 학생들 사이에서 찾고 만들어 갈 것이다.

3. 안병만 총장은 등록금책정위원회를 없애고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 등록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 : 등책위는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투쟁한 성과이나 권위적인 학교의 태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등책위에 의존하는 것 아니라 학생들이 거대한 물결로 투쟁하는 것이 투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추가) 등록금 책정에 논의를 어떠한 형식으로 논의해 갈 계획 입니까?

정 : 사실 깊이 고민 못해봤다. 등책위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해 갈 것이다. 당선되면 당선됨과 동시에 총장을 만나게 될 텐데 총장과 그 부분에 대해 바로 논의를 시작 하겠다.

4. 공약집에서 언급한 '문화의 광장 건립운동'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 : 집단과 토론과 논쟁의 공간이 없다. 확 트인 공간에서 모두 함께 모여 볼 것이 있고 느낄 것이 있고 즐길 것이 있는 광장에 모여보자는 것이다. 왕산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꼭 필요하다.

정 : 학교와 합의가 되고 나서 건설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92년 후복관을 학생들이 건설했듯이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감도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산 특화발전에 대한 논의 사안)

1. 외대만의 특화 발전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 : 커리큘럼의 문제, 교육시설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교수님과 상의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임교수도 확충해야 한다.

▲ 총학생회장 후보 허환희

(추가)이것이 외대만의 특화발전을 말하는 것인지요? 다른 학교와 똑같은 발전 계획은 특화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외대만의 특성을 살리는 발전적인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 : 외대에서 해외연수나 유학을 가지 않는 학생은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 외대만의 장점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를 다녀오면서 만들어 놓은 정보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해외연수 지원센터를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

2. 해외진출 학생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부 : 구체적인 상은 해외 동문들을 많이 모아 교육기관, 정보 등의 정보들을 많이 취합하는 것이다. 취합된 정보를 통해 우리학생들이 해외에 나갈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과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정보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 구상하고 있다.

3. 중복학과 통폐합과 왕산 독자발전안을 총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복학과 통폐합문제는 과 인원 조정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또한, 왕산 독자발전안은 학생들의 총투표로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 : 발전안을 총투표하겠다는 것은 교수, 교직원, 학생 모두가 총투표하는 것. 그게 안된다면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70~80%가 넘는 참여율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내서 학교측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복학과 통폐합문제는 내후년 재단이 공영화되면서 자곡동부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될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외대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자곡동 땅에 이문왕산을 합칠 것인가 아니면 왕산을 특화발전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 또다시 거론 될 것이다. 학교측에서 대략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다. 그런부분이 다시 논의될 때 의견 모으는 것이 총투표이다. 외대중장기안에 대해서 총투표로 모아 간다는 것이다.

4. 설문조사 결과 24대 학생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28%가 교통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부후보께서 교통소위원회에서 활동하셨는데, 공약집에는 교통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교통문제에 관한 대안을 말씀 해 주십시오.

부 :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숙사가 빨리 지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학교측에 요구해 스쿨버스를 늘리는 것이다.

(교육영역)

1. 학칙개정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위상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정 : 학칙개정위원회 역시 팀체계 중의 하나다. 팀체계의 위상은 팀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전권위임할 생각이다. 학칙이 학생들에게 많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며 간부들이 학칙에 매달려하기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팀이 모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추가)계속 거론되는 '빔제'는 공약집에서 내건 500간부들을 모았을 때 가능하다. 500간부를 모을 구체적인 계획은?

정 : 선거때부터 학생들을 만나기며 기획하고 있는 팀인 빵차문제해결팀, 체전기획팀 등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이 팀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총학은 이 팀들을 지원, 지지해 주면서 결과를 집행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다. 계속해서 만나면서 찾고 있는 중이다. 총학이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서 만들 것이다.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년에 과회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모집광고도 내서 모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2. 서버가 다운되는 수강 신청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명확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부 : 아직 정식으로 합의된 사안은 없고 내 생각이다. 미리 조사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80명이 넘을 경우 똑같은 과목을 늘려 듣고 싶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3. 교육투쟁은 학외와 학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부총학생회장 후보 이동수

부 :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못해 봤다.

정 : 학우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각적인 면으로 고민해서, 사이버 학생회를 통해 또는 직접 만나 할 수 있을 것이다.

4. 폐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정 : 인원수가 적어서 효율성을 문제로 폐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학교측의 약속만 받아내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방학이전에 다음 학기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일차적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강의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5. 장애학생에 대한 시설 확충 대안은 무엇입니까?

부 : 건물내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고민하고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싶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학생회 영역)

1. 사이버총학생회의 시스템 구축 등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 :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사이버 학생회 건설이 가장 시급하다. 공약을 점검할 수 있고 커리큘럼 문제나 교통문제 역시 게시판을 통해 바로 바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사이버 총학생회라고 생각한다. 방학내내 준비해서 제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정치투쟁)

1. 학내 취업문제에 대한 공약이 없습니다. 공약이 없는 이유와 학생들이 바라는 취업문제에 대한 학생회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부 : 졸업준비위원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다. 졸준위와 그동안 연계성이 없어서 더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겠다.

2. 두 후보의 한총련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당선이 된다면 한총련 중앙운영위원으로서 수배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를 끝까지 지켜낼 결의가 있습니까?

정 :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열심히 살 것이다. 한총련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한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것이다. 학생운동의 전망을 새롭게 그릴 수 있는 한총련 대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학생들과 많이 친해지면 수배생활도 거든히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부 : 2002년 대의원으로 살아왔고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고 한총련이 300만 대학생의 진정한 요구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대중의 모임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 것이다.

(여성)

1. 올해 왕산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이 정후보로 출마했으나 여성 정책에 대한 공약이 없습니다. 여성운동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 :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 고민 못했다. 총여학생회 후보자와 만나면서 이야기 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기숙사)

1. 안병만 총장의 기숙사에서의 영어사용 등 환경 조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 기숙사는 먼거리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 있는 것이며 2, 3, 4학년 원거리 학생들이 피해볼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영어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교육방법인 것 같다. 그런 방식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부 : 그런 방법으로 영어가 절대로 발전 할 수 없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공부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많은 학생들이 차라치 그시간에 모현에서 술 먹고 놀다가 12시 반쯤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객석)

1. 학생들과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민노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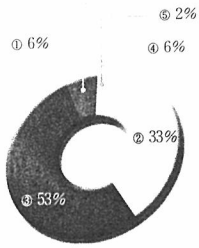
부 :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정당이 우리나라를 더욱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도'하는 것이다. 문제가 될 게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

정리 :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24대 총학생회 후보 출마자 정견토론회를 위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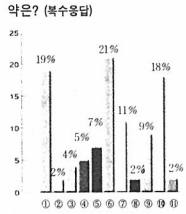
***총학생회 평가 설문조사 (조사인원 100명)**

1. 올 한해 23대 총학생회의 공약이행 종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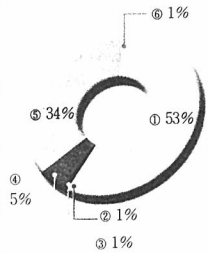
① 이행한 것이 없다.
② 25% 정도 이행.
③ 절반정도 이행했다.
④ 75% 정도 이행.
⑤ 모두 이행했다.

2. 올해 23대 총학생회가 내걸었던 공약 및 핵심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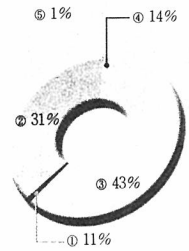
① 등록금 투쟁
② 일학년대표자협의회 등 과학생회의 강화
③ 민주적 재단선임을 위한 노력
④ 총장선출시 학생참여
⑤ 교수충원, 교양과목, 고급강의실 신설 등 교육의 질 강화
⑥ 교통문제, 식당문제 등 복지사안
⑦ 주한미군 철수투쟁
⑧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⑨ 세민전, 대동제, 체전 등 문화행사
⑩ 잘 모르겠다.
⑪ 기타

3. 총학생회의 활동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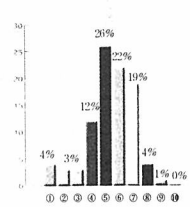
① 대자보
② 학교홈페이지 또는 총학생회 홈페이지 및 까페
③ 행사참여를 통해 (정기학생총회 등)
④ 과, 단대 학생회를 통해
⑤ 활동 내용을 알기 힘들다
⑥ 기타

4. 올해 등록금 투쟁을 평가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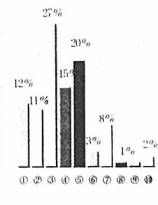
① 잘했다
② 성과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
③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지만, 학생회 상층중심으로 진행된 것 같다.
④ 못했다.
⑤ 기타

5. 위와 같은 사안을 모두 검토해 봤을 때 올해 23대 총학생회에 대한 전체 평가를 내린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점 만점 중 몇점?)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⑥ 6점
⑦ 7점
⑧ 8점
⑨ 9점
⑩ 10점

6. 24대 총학생회가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① 등록금 인상 반대
② 중장기 발전안 수립
③ 교통문제 해결
④ 식당문제 해결
⑤ 교육의 질 개선
⑥ 과 학생회의 강화
⑦ 세민전, 체전 등 문화행사의 강화
⑧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 운동
⑨ 잘 모르겠다.
⑩ 기타

친구야, 캠퍼스에서 대통령 찍을래?

각 대학들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운동' 활발

광주소

지난 6·13 지방선거 때 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평균 투표율(48.9%)에 크게 못미치는 31.2%에 그쳤다. 97년 대선에도 전체 부재자 유권자의 68%인 54만명이 대학생이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대학생은 6.5%에 지나지 않는 3만5천여명에 그쳤다. 20대 투표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젊은층이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도 있지만, 자신의 주민등록증 거주지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 다른 학생의 경우 투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은 문제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20대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들이 직접 나섰다. 지난 10월 30일(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이후 전국 10여개 대학을 필두로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 고려대, 국민대에 이어 중앙대, 성균관대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힌 데 이어 전남대, 조선대, 부산대, 경상대, 경남대에서도 본격적으로 부재자투표소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612명의 부재자투표신청자를 확보한 성균관대의 경우 참대학,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개혁국민정당 학생위원회, 대학원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성대신문사로 구성돼있는 성균관대 대학생유권자네트워크가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심원철(27)씨는 "1만여명의 성균관대 학생 가운데 40% 남짓이 지방 출신"이라며 "앞으로 학교 휴대전화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고 여러 이벤트도 벌여 분위기를 돋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들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재자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투표를 못했다"면서 "대학내에 투표소가 설치된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꼭 투표하겠다"는 적극적인 반응이다.

> "정치가 썩었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정치를 바꿨으면 좋겠다"

건국대에서는 지난 12일(화)부터 '민족건대 유권자운동본부'가 투표선언운동과 부재자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운동본부는 '열심히 욕한 당신, 이제는 찍어라'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유도하고 있으며 15일(금) '2030유권자네트워크'와 함께 각 정당의 청년 담당 정치인과 전국대 학생들이 대화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전남대에서도 13일(수)부터 본격적인 학내 부재자 투표운동에 돌입했다. 전남대학교 유권자 운동본부(총학생회, 전대신문사, 모난돌), 2003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PC(전남대학교 학생신앙운동)로 구성되어 있는 전남대 유권자네트워크는 지난 12일(화) 기자회견과 발족식을 열고 학내 곳곳에서 부재자 신고를 받는 한편 젊은 유권자 거리 조성 등을 통해 대학생 투표 참여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단순한 선거참여캠페인을 넘어 △대선 후보자의 정책 해설 △인터넷 사업 등 후보자 바로 알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많은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내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 이 때문인지 각 대선후보 진영의 '젊은층 표심잡기'도 과거 여느 대선 때보다 훨씬 치열하다. 투표소설치운동에 나서는 많은 대학생들은 "정치가 썩었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정치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서울총학, "설치 가능인원 줄여달라" 기자회견 계획

용인, 이번 주 총학선거기간 활용할 듯

광주소

'성대유권자네트워크'가 부재자 신고를 받고 있다 / 자료사진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오는 18일(월)부터 한 주 동안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부재자투표를 원하는 학생은 총학생회실에 찾아와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며 "또한 단대 선거를 활용, 투표함 옆에 부스를 설치해 투표와 동시에 부재자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대학내 투표소설치 가능인원 2,000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사업국장 정진호(서양·영어 96)군은 "정원이 7,300명인 우리학교에서 투표권이 없는 1학년을 제외하면 2,000명 모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높이기위해선 500명 정도가 모여도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게 선관위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를 위해 부재자신고서 접수시작일인 21일(목)이나 마감일인 25일(월)에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학내에 투표소설치가 무산되는 경우에 대비해 부재자투표날 동대문구청으로 이동하는 셔틀버스를 대여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용인배움터에서는 김보성(동유럽·플란드어 00)군이 용인배움터 총학생회·학생지원처와 연계하여 부재자투표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부재자투표소운동에 관심이 있었다"는 김군은 "여러 선배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학과 학교측과 같이 연대하게 되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군은 오는 18일(월)부터 뜻이 맞는 학생들과 같이 강의실을 방문하며 부재자투표를 홍보할 예정이며 각 단대 건물 입구에서 접수처를 마련, 부재자신고서를 받는다. 김군은 "준비가 많이 미흡하여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궁극적인 목적이 침체되어 있는 20대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니만큼 그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내 생애 첫 대통령 선거는 캠퍼스에서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는 '제 2의 민주화 운동'

2천명 이상 접수 땐 가능·25일 신청 마감

12월 12일 기말고사 기간. 평소 오가는 학생들로 붐비던 학생회관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학생들은 저마다 한 손에 투표용지를 들고 있다. 몇몇 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설레임에 상기되어 있는 듯하다. 투표를 마치고 학생회관을 나서는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이 뽑은 후보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운다.

한 달 뒤 우리대학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유권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를 비롯해 서울지역 10여개 대학에서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돌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긍정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부재자'의 개념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2002.11.5)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2002.12.19)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이다. 지난 10월 30일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선관위)는 "사회 통념상 통학·출퇴근 거리를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부재자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 심사'를 상당히 '신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재자 신청기간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각 대학에서는 25일까지 학생들에게 부재자 신청서 2천부 이상을 받아 해당 지역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로 보내야 한다. 부재자 투표일은 오는 12일 12일부터 14일까지다.

> "7·80년대 피어린 투쟁을 통해 쟁취한 직선제가 대학생들에게 참여 저조로 희석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학내 부재자 투표는 '민주주의의 산 경험'이 될수 있을 것"

따라서 대학생 부재자 유권자가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2002 대선에서 '투표소 설치'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 대학생 부재자 유권자는 후보자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다. 97년 15대 대선에서 당락은 30만표 차이로 결정됐다.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학생 유권자 230만명 중 부재자가 53만명이었다는 사실은 부재자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두번째, 부재자 투표소 설치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대학생 유권자들의 저조한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남은 한달 동안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한 홍보와 이벤트가 대대적으로 펼쳐진다면, 부재자 유권자 60만명 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대화 교수(상지대·한국정치)는 이번 대선을 좌우할 '3대 폭풍'으로 '병역비리, 정계개편, 그리고 대학생 투표 참여'를 꼽았다. 세번째, 부재자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의 진전과 정치발전, 대학인들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직접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교재에서만 봤던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할 수 있다. 부재자 신청서 접수 기간 학내에서 치러질 다양한 토론회, 이벤트, 퍼포먼스, 정치특강 등은 학생들의 '토론문화'를 꽃피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울러 7·80년대 피어린 투쟁을 통해 쟁취한 '직선제'가 대학생들에게 '참여 저조'로 희석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학내 부재자 투표는 '민주주의의 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5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이번 대선에서 대학 내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학생, 대학당국, 교수, 선관위, 그리고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가장 먼저, 각 대학 학생회를 비롯한 학내 단체, 언론사 등은 대학내 부재자 유권자들에게 신청서를 받기 위해 강의실·기숙사 등 학내 이곳저곳을 뛰어다녀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를 마련해 '정치무관심·불신·냉소'가 지배하는 '취업 경쟁의 장'인 캠퍼스를 '축제의 장'으로,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총장을 비롯한 대학당국에서도 인력·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해당 선관위에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투표소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수들 또한 수업시간에 대선에 대한 특강을 마련해봄직 하다.

선관위는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인만큼 '관례'를 뛰어 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관위의 역할이 공정선거 감시와 함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니 만큼, 투표를 하고자 하는 대학인들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또한 당리당략적 접근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마련이 필요하다.

얼마전 대학생 정치참여를 위한 대학언론인운동본부에서 서울지역 대학생 5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해 73%의 학생이 '모르고 있다' 답했다.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한 대 사회적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다. 성공의 열쇠는 '실천'에 달려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2주(11일~25일)라는 시간 동안 학내에 '부재자 투표'의 붐을 일으켜 보자.

김효섭
〈대학생 정치참여를 위한 대학언론인운동본부 연대사업국장〉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대학생 부재자 신고 안내

신고 및 접수기간

2002.11.21(목)~11.25(월) 5일간

○ 부재자신고서는 11. 25(월) 오후 5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우편 또는 인편)되어야 함. (우편요금 무료)

신고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동)의 장

○ 부재자신고서 용지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본교 학생지원처 등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함.

부재자신고 대상자

○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 ('82. 12. 20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02. 11. 25)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장기출타자)

※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있는 대학생 등이 여기에 해당

부재자신고서 작성방법

○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본교 학생지원처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용지 및 부재자신고요령을 자세히 읽어본 다음 작성(부재자신고서 [작성예시] 참고)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자신이 해당하는 부재자신고사유를 확인하여 그 번호에 ✓표를 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야 함.

신고서 겉봉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받는 사람)란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의 읍·면·동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무표는 불이지 않음)

2002. 11

학 생 지 원 처 장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후보 정견토론회가 열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국의 5년을 결정짓는다면
총학생회 선거는 외대의 향후 1년을 결정짓습니다.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찬·반을 결정하는 시간
우리, 놓치지 맙시다.

○ 일시 : 21일 목요일 오후 4시
○ 장소 : 학생회관 1층 휴게실
○ 주최 : 3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4대 언론협의회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기고 -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회 이후의 중국의 향방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중국의 거대한 실험

지난 11월 8일 개막된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회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변화된 중국사회를 반영할 뿐 아니라, 향후 중국공산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의미있는 대회였다. 대회 기간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이는 제3세대 지도부로부터 제4세대 지도부로의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건설과 안정의 유지를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종국적인 목표의 완성으로 가는데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공산당이 추진해온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회를 중심으로 향후 중국사회변화에 대한 간략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

연합뉴스

계획경제체제의 시행착오

1921년 창당된 중국공산당은 중국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나, 점차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꾀해왔다. 지난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11대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후 당내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鄧小平)은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워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실시, 마오쩌둥(毛澤東)식의 정치중심·혁명중심의 사회주의 건설방식을 부정하고 생산력 발전을 현 중국의 제1의 임무로 규정하여 모든 당 업무를 경제건설에 집중시켜왔다.

마오쩌둥 시기 중국에서 실행된 계획경제체제는 소련식 경제발전모델을 수용, 고도의 중앙집중을 통해 상명하달식의 경제관리방식을 채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이러한 경제건설 방식은 외연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이후 정확한 경제정책 방침의 미흡과 시행착오로 인해 낙후상태를 면하지 못했던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1958년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던 '대약진운동'의 실시는 많은 중국인들을 기아상태로 몰아넣었고, 1966년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이후 10년간 중국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움으로서 중국사회를 혼란과 빈곤상태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이러한 낙후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을 "날로 증가하는 인민의 물질적 요구와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낙후된 생산력"이라고 규정하고, 경제건설을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했다.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내세워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했다. "사회주의초급단계"는 모든 국가가 사회주의로 진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처럼 생산력이 낙후되고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조건아래서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특정단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생산력을 발전시켜야만 발달된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중국이 처음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할 때,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성공'을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을 이은 새로운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공산당 영도하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지금 또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산력 발전, 즉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생산력을 억압해 왔던 구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어 졌으며 이러한 개혁은 1979년 농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집단화되었던 인민공사를 해체하면서 시작된 농촌개혁은 점차 도시로 확대되었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발전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는 1992년 중국공산당 제14차 대회에서 정식으로 천명되었는데, 이는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도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주의와 시장의 공존가능성에 대해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라는 주장(黑貓白貓論)을 통해 생산력발전에 유리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관단기준의 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라는 도식을 깨고, 중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시장 역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회주의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4항원칙(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둥사상,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인민민주독재원칙)을 고수할 것을 주장했다. 이렇듯 덩샤오핑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하지만 위의 네 가지 원칙을 고수하여 발달된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개혁·개방, 정치·사상적으로 4항견지라는 원칙을 유지하는 이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쩌민 집권 13년, 놀라운 경제성장 많은 부작용도 일어나

이러한 덩샤오핑의 기본입장을 계승한 장쩌민(江澤民)은 지속적인 경제건설을 위해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덩샤오핑 시기 경제건설이 강조되던 와중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외치며 경제건설과 시장화 과정에서 파생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이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지난 2001년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사에서 장쩌민은 "삼개대표"이론(당은 선진 생산력, 선진 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을 내세워 공산당의 변화를 주장해왔고, 이를 통해 당 내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당 건설을 주장해왔다. 그 결과 장쩌민 집권 13년 간, 연 평균 9.3%라는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나타난 부익부 빈익빈, 실업률의 증가, 부정부패의 만연, 황금만능주의,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의 확대, 지역 간 발전불균형 등 많은 부작용들은 공산당 지도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는 여전히 중국공산당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인민의 적'인 자본가,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번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회는 지도부의 교체라는 의미와 동시에 향후 중국공산당이 당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이번 16차 대회는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당의 입장을 볼 수 있다. 바로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의 공산당 입당허용이다. "엄밀한 심사를 통해서"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기업가의 공산당 입당이라는 것은 기존의 노동자·농민의 계급동맹을 기초로 한다는 공산당의 계급적 기초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가를 입당시키려는 것은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양산된 민간 기업인들을 통제불가능한 당 외부에 두기보다는 당 내부에 끌어안음으로서 기업가들의 이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점차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공산당이 수용한다는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계층 간 분열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의 과정에서 파생된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단 계층 간, 지역 간 분배문제에 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기업가들의 입당허용과 함께 노동자·농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불만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당내 반부패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공산당 내부를 정화해 진정으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처음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할 때,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성공'을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을 이은 새로운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공산당 영도하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지금 또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석희
〈'중국 역사와 문화' 강사〉

콜로키움 - 헝가리 작가 케르테스 임레의 문학세계

희망과 자유로 살아남기

헝가리 작가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케르테스 임레는 아우슈비츠의 유태인 수용소에서 소년기를 보냈다. 15살에 대학살을 목격한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에게 더욱 이상한 것은 이 대학살을 알고 있는 다수의 침묵이었다. 그의 이웃들과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고 동정하기는 했으나 그의 불행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는 않았다. 결국 소년은 자신이 목격한 끔찍한 대학살의 참상을 글로 알리고, 다수의 침묵을 깨고자 작가가 되었다.

케르테스의 첫 소설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운명은 없다〉에서는 15살의 주인공 쾨베시 죄르지가 유태인 수용소에서 지낸 1년을 그리고 있다. 죄르지는 학살이 일어나는 수용소에 갇히지만 그곳에 의외로 쉽게 적응한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는 것-살아 남는 것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살아 남기 위해 참고, 인내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작가가 수용소에서 나와 20년이 흐른 뒤 완성한 이 작품은 출판이 거절되어 다시 10년의 세월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1975년에 출판되었다.

첫 작품을 완성하고도 케르테스는 소년기의 경험을 벗어날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갔지만 작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과거의 한 시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다음 작품인 〈실패〉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연가〉를 삼부작으로 발표한다. 〈실패〉는 케르테스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한 늙은 작가의 집필 활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늙은 작가는 완성하게 참작을 하지만, 어느 출판사에서도 책을 출판해 주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 젊은 신문기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작가 자신의 생애를 담은 글을 쓰게 된다. 늙은 작가, 신문기자가 모든 행동과 상황을 반복하면서 결국 케르테스 자신의 내면에 뿌리내린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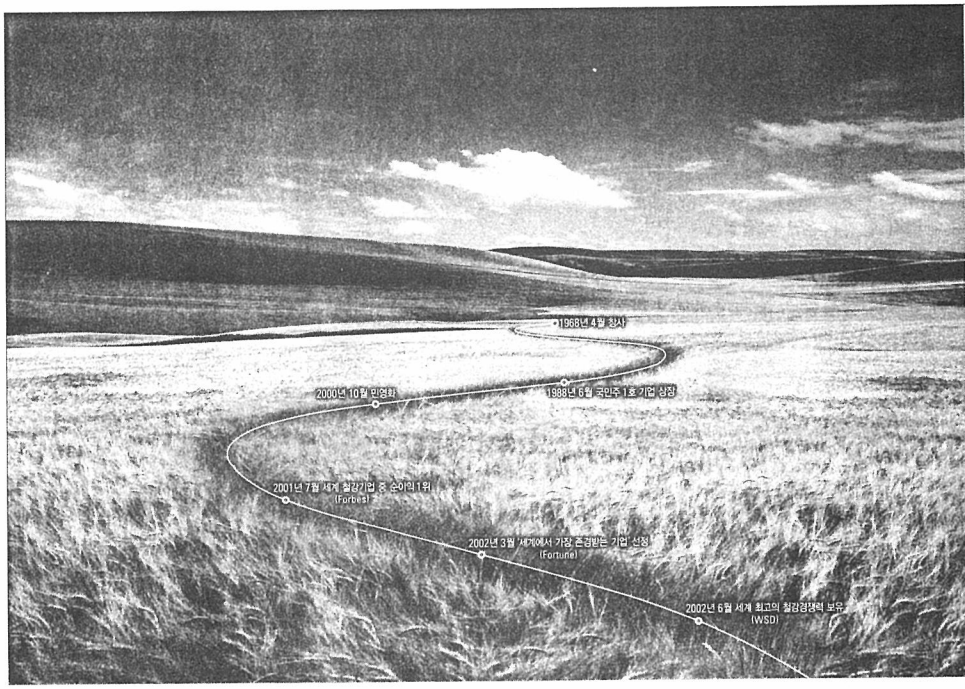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연가〉는 주인공이 죽은 이를 위해 바치는 유태교의 연가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시작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유태인 대학살을 인정했던 이 무서운 세상에다 어린 아이를 낳아 그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외친다. 그는 이 무서운 세상에 아이를 던져 넣지 않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삼부작이 완성된 이후에 그는 주로 강연원고나 에세이를 모은 작품집을 선보인다. 〈함해선 일기〉, 〈문화로서의 홀로코스트〉, 〈누군가 다른 사람. 그 변화의 연대기〉, 〈총앞이 새로 잠전될 때까지, 생각의 순간〉, 〈추방된 언어〉는 모두 에세이집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생존이라는 화두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외에 소설작품도 발표하는데 〈추적자, 탐정 이야기〉, 〈영국 국기〉, 〈사건 조사 기록〉은 모두 주인공이 탐정이거나 경찰이다. 그들은 우연하게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며 마침내 정권이 교체되면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채 죄를 지었고, 다른 누구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한 채 판결을 받는다.

케르테스의 모든 작품에는 사회적 제도와 국가 권력이 배경으로 등장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작가는 이러한 위협과 난관이 개인의 존귀함과 존엄성을 지키도록 만든다고 믿는다. 스웨덴 한림원의 발표대로 케르테스는 "거대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사회와 정치 구조의 시대 에 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탐구하였고, 그 결과 인간이 한 개인으로서 살며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작가다.

케르테스가 73년의 생애 동안 몸으로 보여준 것은 '운명을 이겨내고 살아남기'였다.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살아 남는 것이며, 삶의 위협과 운명을 이겨내는 것이었다. 체념과 무기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자유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몸으로 보여준 케르테스에게서 우리는 현대의 비인간화된 사회와 환경 속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지를 발견하게 된다.

한경민
〈헝가리어과 교수〉



세계로 가는 길

끝없는 혁신과 변화로 앞서가는 포스코 - 최고의 경쟁력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의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이 가야 할 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투명경영, 디지털경영, 스피드경영 등 변화와 혁신으로 달려온 민영 포스코의 두 돌.

당당한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 언제나 앞서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민영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 2년-
세계철강 1강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흡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7매 내외 / 마감 : 매주 금요일 자정
투고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전자우편 oedaepress@han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기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흡산(HUFSan)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로. 외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명당

누구를, 무엇을 위한 후보단일화인가?

김형철
〈한국정치사회의 이해' 강사〉

이제 17대 대통령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섰다. 97년 정권교체와 국민경선에 의한 대통령 후보 선출 등은 국민들의 민주정치에 대한 기대를 한층 고양시켰다. 그러나 그 기대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사라지고 혈세 정치인들의 이합집산, 합종연횡 등 '구태정치'에 의해 다시금 국민들을 실망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개혁성, 선명성, 그리고 국민경선에 의한 국민후보임을 최고의 무기로 내세웠던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해 다시금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과연 왜 그들은 후보단일화를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후보단일화의 협의 과정을 살펴보면 단지 여론조사에 앞서가고 있는 한나라당의 후보를 견제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이유에 있다. 그리고 그 협의 내용은 정책의 공유보다는 단지 국민의 여론조사 방법을 통하느냐 아니면 대의원 참여 여부를 둘러싼 단일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두 후보 모두 개혁정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무현과 정몽준 대선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개혁정치와 정당성에 있어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그들의 후보단일화의 끈은 단지 '반이회창'론이다. 즉, 보수정당의 후보인 이회창 후보가 대권을 잡게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개혁정치가 후퇴할 것이라는 다급함 속에서 단일화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정몽준 후보는 개혁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노선은 오히려 노무현 후보보다는 이회창 후보와 더 가깝다. 이렇듯 정치적 성향과 정책노선이 서로 다른 노·정간의 단일화란 그들이 외쳐댄 개혁정치, 특히 선명한 '정책정당'을 통한 정치 발전을 외면하는 '정치적 결합'인 것이다.

둘째, 국민 경선에 의해 불었던 '노풍'은 단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믿음과 선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즉, '노풍'은 노무현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정치에 대한 국민의 바램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단지 대선 후보간의 여론조사에서 낮게 나왔다고 해서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뜻을 따르겠다는 노무현 후보의 약속과는 상반되는 행동이며, 또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후보단일화 논의는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후보단일화를 과거 87년 당시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의 단일화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같을 수 있는가? 당시 후보단일화 논의는 직선제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민주정부의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단일화는 개혁과 보수의 변형된 결합으로서 단순히 2-3위인 후보끼리 단일화하는 명분없는 '정치적 산술' 정치인 것이다.

우리는 21세기를 맞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한국정치의 새 흐름을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선거는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 진보'를 위한 정치의 밑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따라 대권을 위한 합종연횡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적 선명성에 기반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와 학생들의 다가가기

매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면 함께 붙어있는 고지서를 보게된다. 그 "학생회비"를 내면서 그다지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이유는 학생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대표해서 등록금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학생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응원을 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요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칫 지나치게 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대자보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을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 물론 그들의 행동에 잘못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말이다. 이런 학생회를 뒷받침 하는 것이 바로 학생들이 "학생회비"라는 명목으로 내는 돈일 것이다. 이것은 학생회를 위한 학생들의 역할이다.

> 학생회를 잘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학생회를 잘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같으로는 같은 과 안에서 혹은 같은 학교 안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피상적인 관계에서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고보면 서로 동기, 선·후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단 학생회 측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먼저 학생회는 과거의 과격한 이미지를 벗고 친근하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학생회 안에 도우미들을 두어 새내기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상담·조언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고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는 친근한 분위기를 어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 빼빼로 데이에 학생회에서 전공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포장해서 선물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학생회 행사를 알릴 때에도 어찌보면 성의없게 보이기도 하는 프린트물을 나눠주기보다는 휴지를 주는 것은 어떨까?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학생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지나치게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싶다. 예를 들자면 "학생회 격려함"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동기나 선·후배가 일하는 학생회인데 그들이 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은 못하더라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서로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비단 학생회 뿐만 아니라 "도서관 학생위원회"를 비롯한 학교 안에 있는 많은 단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박정화 (서양·독일어 00)

사은회비 모금 문제있다

| 경영학과 사은회비 모금논란에 관한 입장

상황 전개

지난 11월 2일 후배에게서 불만에 가득한 푸념을 들었다. 경영학과 사무실에서 졸업논문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경영학과에서 사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은회비가 4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졸업예정자가 4만원을 내지 않는 경우는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사은회비 4만원을 내지 않으면,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없게된 것이다.

1차적으로 과 사무실과 취업대표에게 상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뒤이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없었고, 통신을 통해서 재차 문제제기에 들어갔다.

취업대표의 기본 입장

취업대표의 기본입장은 이러했다. 취업서열 추첨과 졸업예정자 모임에 대해 1)과사무실 게시판에 보름동안 공지하였고, 그에 따라 2) 전체 졸업예정자 130여명 중 40여명이 참석하여 취업추첨과 여러가지 안건을 토의했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사은회 관련 건이었고, 3)졸업예정자 전원으로부터 4만원씩 일괄적으로 거둬서 사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했다. 4)돈은 논문제출시 논문과 함께 받기로 하였으며, 사은회비 납부는 의무적인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 (제 2전공자와 복수전공자 역시 예외없이 무조건 사은회비 4만원을 납부한다)

> 130여명의 졸업준비생 중에서 4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내린 결정사항에 대해 나머지 불참자 80여명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4가지의 문제제기

이에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이메일이나 전화한통 제대로 받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과 행사에 소극적이거나 제2전공자, 혹은 복수전공자들에게 단지 15일 동안 게시판에 '경영학과 모임' 을 공지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무조건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따라야 하며, '모임'에 불참한 경우 '모임에서의 자격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 혹은 양도한 사람들'로 규정짓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당시 취업대표는 "15일 동안 공지했으므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제 와서 사은회비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130여명의 졸업준비생 중에서 4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내린 결정사항에 대해 나머지 불참자 80여명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다. 비록 40여명이 내린 의사결정이 정당하였고, 모임에서 내린 결정이 다수의 의견을 대표한다 할지라도 소수자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은회 참석여부는 학생 개인의 고유 결정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셋째, 사은회비와 졸업논문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취업대표는 명백하게 밝혔지만, 실제로는 4만원을 내야만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사은회에 참석할 생각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졸업논문 제출 비용이 4만원인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졸업논문 제출 자격을 사실상 사은회비와 맞바꾼 것에 다름아니다.

넷째, 이번 사은회비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제기한 당사자가 제 2전공자들이라는 이유로 경영학과 취업대표는 "제 2전공자들이 그렇게 경영학과 학생들과 차별 받기를 원한다면, 4만원을 돌려주는 대신 그렇게 하겠다". 즉, 4만원을 돌려주고 취업추천서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4만원이 취업추천서를 받는 비용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생긴다. 경영학과 사무실과 취업대표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부탁한다.

사은회는 흥륭하고 아름다운 전통으로 길이 남아 스승과 제자가 서로에게 정을 나누어주며 서로 믿고 따르는 바람직한 학내 풍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의미가 있는 사은회라 할지라도 방법과 과정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 500만원을 모아서 호텔을 꼭 빌리지 않더라도, 학교 앞 노천에서 교수와 제자가 막걸리 한 사발로 함께 목을 축이며 나누는 웃음만으로도 사은회는 성공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넘게 타 과의 일에 대해 주접을 떨었다면 관대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길 바라며, 문제제기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주실 것을 경영학과 사무실과 취업대표에게 부탁드린다.

이원만
〈서양·영어 96〉

> 위 글에 대해 경영학과 취업대표의 반론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외대학보 818호 비평

비권학생 연대의 탈락

지난주 학내 관심사 중 하나는 서울배움터의 비권 학생연대가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에 등록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안이었다. 후보 등록일 전부터 이번 선거에 열의를 보여온 비권 학생연대 측에선 선거 후보 공고일이 되자 총·부 두 명의 후보를 냈다. 하지만 부후보 신청자의 신청자격이 선관위로부터 선거시행세칙 2장 5조(피선거권) 4항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입후보 현재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에 미치지 못해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후보심사에서 탈락했다. 오랜 회의 끝에 결국 비권학생 연대측은 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선거에서 빠졌다. 역시 이번 사건도 신문제작에 영향을 끼쳤다. 대학부 기자는 입장이 곧 나온다는 비권학생연대측의 말에 따라 그 부분의 문장만 빼놓고 기사를 작성한뒤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마감시간은 점점 다가왔지만 비권연대측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신문 최종판이 들어간 뒤 화면교정시간에 입장이 발표돼 부랴부랴 기사를 수정 할 수 있었다.

지난 818호의 기사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기사는 바로 6면 사회기획의 양참모 사회부장의 경기도 여주의 한 마을의 이장을 따라다니며 쓴 르포기사였다. 농업 쌀개방 문제에 대한 외대학보의 입장을 기자 특유의 문체로 써 내려간 글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었고 호응을 끌어냈다.

마지막으로 문화면에는 68기 수습중 2명의 데뷔 기사가 부탁을 차지했다. 이미 학보에 일곱 수습들은 단신을 전담하고 있는 든든한 기자들이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실리는 김용훈, 곽혜미 두 수습은 기사의 개요와 레이, 제목, 부제까지 모두 수습기자들의 손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뭐 기사가 나온 나머지 이름이 실리지 못한 수습기자들에게 시샘을 받았다는 뒷 얘기도 있지만…

김종원 편집장 bpress@hanmail.net

쓰고도 버리시겠습니까?

- 원고료 찾아가세요 -
· 대 상 : 2002. 9. 1 이후 학보에 글 쓴 사람
· 장 소 :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2층 신문사
· 연락처 : 02-961-4152 / 031-330-4112

생활정보

주거정보

□옥탑방(도시가스)
방 매우 큼. 주방, 화장실은 따로 있음
냉장고, 가스렌지를 제공
외대역에서 5분 거리, 서울배움터 7분 거리
월세, 전세 모두 가능
월세-보1000 월30
즉시 입주 가능.
직장인, 학생 모두 환영
연락처 bettey@hanmail.net

□아파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5분거리
현대아파트 14층 13평형(지은지 2년)
방2, 화장실, 베란다, 주방
월 40만원, 제곱형
연락처 018-297-0143 csunghun@exilim.co.kr

□1층 집
큰 방1, 부엌, 옥실 완비
보1000 월25/전세 3000
혼자살기 딱 좋음. 주인 친절함.
도시가스와 수도세는 각자 내고 전기세는 1, 2층 배분.(2층 주인집)
즉시입주가능
연락처 02-969-3317, 018-316-2611

□하숙(여학생만)
주인 음식 잘함.
서울배움터 먹자골목 주택가.
연락처 02-960-7318

팝니다

□노트북-센스820
280에 구입
70만원에 팜(랜카드 제외)
양쪽 아랫부분의 화면이 약간 이상함.
1시간 사용 배터리.
연락처 016-9686-2717

□접는 자전거(중국산)
신지 6개월 됐음.
알루미늄 재질이라 녹이 안 슬지만
이음 나사 몇개에만 약간 있음.
구입가 20/ 판매가 10만원.
녹방지및 윤활제 WD-40과 자물쇠를 덤으로 드림.
연락처 okebar777@hanmail.net

□퀀사이즈 침대(공짜)
5~6년 정도 사용 연락처 011-9309-8227

□핸드폰(011)
모델은 SCH-X140(흰색)+배터리 2개.
제조년월은 2002년 2월1일.
외상과 내상은 전혀 없음.
가격은 20만원. 원하시면 번호도 같이 드림
할부금이 남았는데, 20만원에 포함된 가격.
연락처 dongfan@freechal.com

□영한사전.
연락처 hankyubok@hanmail.net 017-254-8469

□토익 책
김대균 토익답이보인다 뽀까 2(테이프 포함)
완전히 새책.
정가 17,900원/판매가 14,000원 내외.
연락처 018-290-0623 konee@hanmail.net

아르바이트

□DVD방
디브이디 틀기.
시급은 2500원
토, 일 오후3시~10시(7시간)
위치-석계역 앞
바로 석계역 앞이고요
연락처 016-797-3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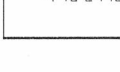
□도서관 총무, 피씨방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오후5시~아침 9시
연락처 berserk33@freechal.com

알림

□SSS 세계문화체험단
5기 프로그램.
미국 테이캠프
캐나다 대자연캠프
뉴질랜드 비전캠프
호주 드림캠프
중국 챌린지캠프
필리핀 아일랜드캠프
참가 안내 및 문의
SSS 세계문화체험단 사무국
전화번호 02-722-7575
홈페이지 http://edu.sbs.co.kr/culture/

□강사 모집
파커폰 송파지부에서 실력있는 강사진을 모집합니다.
기졸업생 및 2003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영어교육에 뜻이 있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지 : 서울
2. 업무 : 초중고생 및 일반/비지니스 전화 영어회화 강의
일주일 연수 후 재택근무 가능
3. 급여 : 면접 후 결정
4. 지원 방법 : 상기 메일 주소로 온리인 이력서 제출
*이력서 검토 후 면접 통보
연락처 02-466-0530 ckenglish@hanafos.com

□청소년연수지원재
지원자격 : 만18세~30세이하(1972.1.1~1984.12.31)의 고교, 대학(대학원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
* 졸업생의 경우 근로경력3개월 미만자(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
제외자 : - 실업대책 등 정부지원사업 수혜중인 자
- 직업훈련과정 이수중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중인 자
- 현장실습이 학점으로 편성되어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연수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연수기간 : 2~6개월(주당 20시간-일일4시간 등 탄력적 운영)
연수수당 : 월 30만원
연수기관
* 기타 파견정부청사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신청 접수중
참가신청 방법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반명함판사진부착) 및 학력증빙서류(학생증,졸업증, 재학·졸업증명서 등)
접수장소 및 문의처 :
· 인덕원고용안정센터(☎031-423-7245~7) 조소영, 차명권



이번 총학생회, 이것만은!

서울
· 투쟁적 말투부터 좀 고쳐줬으면….
· 공약 좀 지켜줘요!
·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 핑계대지 마라.

용인
· 교환학생수를 늘려주세요.
· 도서관 외부인출입금지 시켜주세요.
· 명수당 옆 도로 이번학기 3번 교통사고났어요.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 인터넷 게시판을 만들어서 평소 학생회에 건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빵차 배차시간을 명확히 해주세요.
· 후복관 편의시설이 부족해요. 빵집에 빵두 별루 없구….

보도-지난 14일(목)열린 서울배움터 노래패 토론회에 다녀와서

민중가요, 세상에 대한 진실이 담긴

한상우 기자

'민중이 창작하고 또 민중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민중가요의 정의일 테지만 대략 민중가요는 '운동권 노래'의 다른 말로 불린다. 과거 '민중가요' 혹은 '운동권 노래'는 운동권 학생들이 특정 시위현장에서 부르는 노래였다면 요즘의 '민중가요'는 대중가요들이 지닌 요소들을 접목하면서 대중에게 매우 친근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봄 미국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유명해진 민중가요 '퍼킹 유에스에이(Fucking U.S.A)'는 록 장르를 결합하여 '이것도 민중가요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요즘의 민중가요는 핸드폰 벨소리에까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목) 서울배움터에서 민중가요를 창작하고 연주하는 노래패들이 토론회를 열었다. 외대노래 창작단 '청년'이 주축이 돼, 영어과 솔찬, 터키어과 터울림, 상경대학 맥박, 포르투갈어 깃발, 중국어과 못갖춘마디 등 서울배움터 내 민중가요 노래패들이 거의 모두 참석했다.

청년이 학내 노래패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민중가요의 특징에 대해 패원들은 '형식이야 어떻든, 세상에 대한 진실이 담긴 노래'를 첫 손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노래', '낮은 곳으로의 관심을 표현한 노래-이를테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정치적 소수자', '화려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노랫말로 감동을 주는 노래', '개인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을 인식하면서 만들고 부르는 노래'를 민가의 특징으로 보았다.

노래패원들은 또한 앞으로 바람직한 노래패의 상으로 '기존의 노래들 중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하고 '우리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노래를 창작하고 보급'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민중가요 노래패"라는 간판을 떼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노래를 하자'라는 의견도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청년' 노래패장 김성휘(서양·노어 97)군은 "학내 노래패가 학생들의 다양한 음악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예전의 활동을 답습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내 노래패간에 서로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당일 진행됐던 토론회 내용 중 일부다.

후배들과 민중가요

임두리(깃발, 포르투갈어 01·이하 두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노래나 악기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오는 새내기에게 민중가요의 내용설명을 하면 거부감을 느낀다. 점차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은 희의적이다. 이를 어떻게 하겠는가?

신은주(청년, 이태리어 00·이하 은주): 나도 얼떨결에 (노래패에) 들어왔지만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민중가요에 대한 가사를 보면서 그 의미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일단 민중가요는 운동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민중가요 내용에 대한 생각은 새내기 스스로의 생각에 맡기자.

> 공연을 준비하고 직접 선뵈면서 즐기는 마음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닌가

민중가요 노래패 간판을 떼자?

사회자: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이에 민중가요 노래패라는 간판을 떼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싶은 노래를 하자'라는 것에는 어떤 의견이 있는가?

강민규(맥박 패장, 무역 01): 선배님들이 만든 맥박이라는 존재가 이름 하나만으로도 역사이다. 요즘의 자유로운 노래만 한다면 밴드와 다름없지 않나.

정해리(맥박, 경영 01·이하 해리): 반대한다. 꼭 투쟁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농민, 노동자 감정을 표현하는 것 또한 현 사회의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만으로도 민가를 부를 충분한 가치는 있다. 사회고발면에서 노래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민가의 역할이고, 그리고 창자로 하여금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노래패의 존속가치는 있다.

관객과 노래패

사회자: 지금 노래패 하기가 힘들다. 예전엔 노래패가 메이저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공연이 있을 때도 관객 동원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민중가요는 다수의 것이 아닌 운동권의 한쉬인 목소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된다. 노래패들이 자기 만족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가 ?

중국어과 못갖춘마디 한 패원: 민중가요, 학생운동 모두 시양길에 접어드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변화는 사회적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의 눈과 귀를 막는 변수가 생긴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민중가요를 부르는 사람은 좀더 대중들에게 다가서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은주(청년, 이태리어 01·이하 은주): (학생들은) 운동권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운동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학내 대자보를 꼼꼼히 읽는 것, 선거 때 선거자료 읽는 것도 운동이다. 민중가요의 성쇠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나 싶다.

사회자: 공연관객 수에 만족하나? 학생들은 왜 공연을 찾지 않을까? 왜 민중가요에 관심이 적을까?

해리: 민중가요에 대한 고정관념이 굳어져 있다. 민중가요를 대체할 만한 노래가 많이 있다.

은주: 노래패들 스스로가 관객의 범주를 친구, 선배 등으로 한정하는 것 같다. 또 공연 홍보를 소홀히 하는 것도 큰 이유다.

사회자: 노래패공연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현재 노래패들은 프로 가수들의 곡조차 그대로 연주하기에는 벅찬 실력이니 감히 재해석, 편곡은 엄두도 못 낸다.

전호숙(솔찬, 영어 02): 새내기들 중 대부분은 민중가요라는 자체에 대해 모르다 노래패에 들어간 것인데 사회자가 말한 수준까지 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연을 준비하고 직접 선뵈면서 즐기는 마음을 관객들에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닌가.

사회자: 결국 그러면 노래패 공연이란게 자기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해리: 기능·실력적인 면에서 대중가수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왕 이런 환경이면 노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만족만을 위한 공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객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공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은주: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자기만족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관객들과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탐방 - '등잔 박물관'을 다녀와서

등잔 속에 묻어나는 전통의 향취

용인배움터 부근 능골 삼거리에 위치

용인배움터의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공간이 없어서 늘 아쉬웠다.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에 학교와 가까운 모현면에 등잔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교 주변에도 문화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하며 공강 시간을 이용해 찾아가 보았다.

1500번 버스를 타고 능골삼거리에서 내려 10분가량 걸어가자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 뒷편으로 수원 화성 모양의 등잔박물관이 나타났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 커다란 개가 짖어대는 통에 박물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잠시후 온화해 보이는 어르신이 나오시며 "쉬! 조용하거라!"하며 개를 진정시키고 나에게 "박물관 구경 오셨군요? 제가 보여 드리지요" 하며 박물관 안으로 안내했다.

건물 내부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주변경관에 못지 않은 온화한 실내 분위기가 정겨운 느낌을 주었다. 안내 해주신 김동희 선생님은 이 박물관의 설립자로 그는 어린시절 등잔불 밑에서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을 잊지 못해 40여년간 500여점의 등잔을 비롯한 옛 물건을 수집하셨고 지난 97년 한국등잔박물관을 개관했다고 하셨다. 진열된 등잔을 바라보시던 선생님은 "예전엔 참 흔한 물건이었지요. 요즘은 등잔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어린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듯 눈을 지그시 감으셨다.

> 예전엔 참 흔한 물건이었지요.
> 요즘은 등잔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 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1층 전시실로 들어가니 '생활속의 등잔'을 주제로 한 전시실을 볼 수 있었다. 일반 박물관처럼 전시물이 유리장 속에 일렬로 진열되어 딱딱한 느낌을 주는대신 이곳은 조상들이 생활하던 '안방' '한약국' '시랑방' '마루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박물관이 아닌 남의 집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방 한구석에 놓여진 떡삶(떡의 문양을 찍는 도구)이나 벽에 옷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며 세심한 곳 까지 신경 썼다는 느낌도 들었다.

2층에는 등잔박물관의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등잔이 진열되었는데 역시 '역사속의 등잔' '아름다운 등잔'의 주제에 따라 전시되어 고대 부삿돌부터 조선후기의 유경(놋쇠로 만든 촛대)까지 시대별 등잔의 특색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중 내 눈길을 끈 것은 혼례에 관련된 소품들이었는데 신부가 타고 가는 꽃가마와 화촉의 미세한 무늬를 보며 혼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선조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화촉은 신혼 첫날 밤 불을 켜는 것으로 불이 밝아 질수록 특유의 좋은 향이 난다고 한다. 왜 결혼을 '화촉을 밝히다'라고 표현하는지 알게 되었고 향긋한 화촉의 향을 맡으며 밤을 보냈을 옛 신랑 신부가 부럽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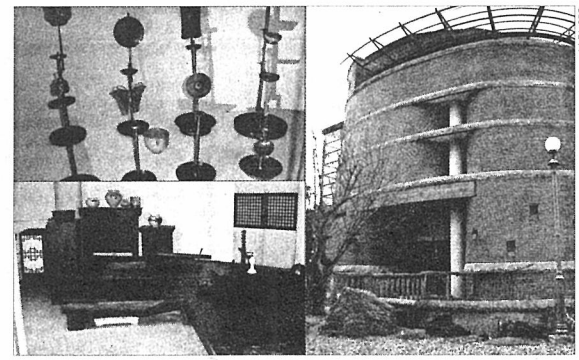
전시품을 살펴 보던 중 이곳만의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바로 전시품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전시물 앞에 '생각하는 박물관'이라는 표어만 놓여있었다. 김동희 선생은 "만일 설명서가 붙어있다면 관람객은 유물이 주는 감동을 제대로 느낄 수 없어요. 물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박물관 관장이나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라며 작품을 바라보는 느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또한 이곳에는 생활상을 보여주기 위해 인형을 사용하는 타 민속박물관과 달리 인형이 없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만일 떡살을 이용해 떡을 만드는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다면 단순히 '떡을 만드는 모습이군' 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떡살이 바구니에 잔뜩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호기심이 생기고 예전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떡 모양을 찍는 물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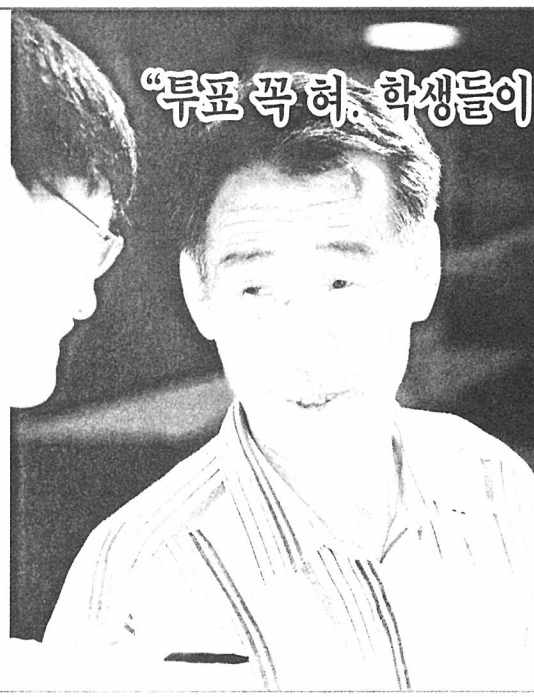
비록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밤늦도록 어머니가 다듬이질하던 방을 밝혀주고 첫날밤 신부의 볼을 더 붉게 물들이던 등잔불은 오랜 시간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된 등잔박물관에서 우리생활이 그대로 담겨있는 전시물을 보며 그 등잔을 만들고 사용했던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 문의 : (031)334-0797

장은경 수습기자
alcong2@hanmail.net


한상우 촬영

12월 19일 대학생투표하자



"투표 꼭 해. 학생들이 선택한 세상이면 나도 좋겠어"

우연히 취재중에 만난 할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 새정치를 책임질 사람은 바로 대학생이라고. 할아버지의 '희망' 우리 대학생이 투표해야죠.

투표참여 100배 즐기자

[투표하겠습니다] 선언하기
이제 더 이상 정치 현실을 '탓'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행동합시다.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하기
[캠퍼스에서 대통령 뽑자] 대학생 부재자 유권자도 투표합시다.

'깨끗한 선거와 투표참여' 위한 대학생 플래시·포스터 공모전
2002년 10월 29일~ 2002년 11월 29일까지
주최: 한국기자협회 대학언론위원회/ 후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주관: 인터넷 대학신문 유뉴스(www.unews.co.kr)

대학생 정치참여를 위한 대학언론인운동본부(http://vote.unews.co.kr)